

급격한 침체로 돌아서 선도회사 격차 줄어 경쟁치열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매출액이 떨어졌다.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감소는 수요를 억제했고 곡물가격 하락 또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젠타와 바이엘의 업계 1·2위간 격차는 줄었으나 바이엘이 2위 자리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몬산토의 극심한 부족이 눈에 띈다. 선도 회사별 현황을 알아본다

- 기술개발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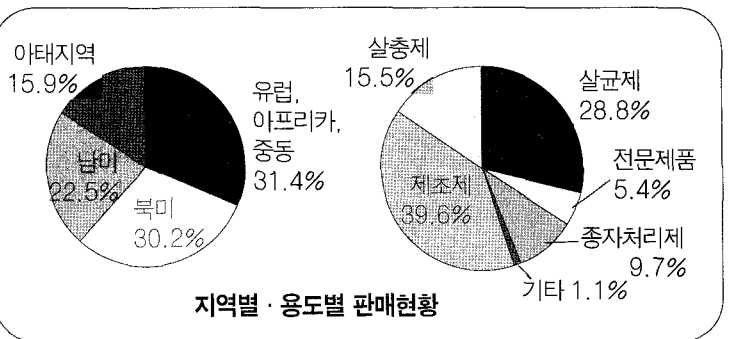
신젠타(Syngenta)

농약 매출액은 8.0% 떨어진 84억9천1백만 달러를 나타내 매출액에서 농약산업의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1999년 이래로 Syngenta 매출액은 매년 평균 2.9% 비율로 성장했으며 지난 5년간 매출액 성장률은 매년 7.9%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2002년 이래 2009년 처음으로 매출액 감소를 보였다. 통화영향도 매출액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합병 이래 블록버스터급 제품들의 우수한 판매로 성장을 가져왔고, 2008년 바이엘을 추월하여 산업 선두주자가 된 결과를 가져왔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매출액이 17% 감소를 보이며 가장 약세를 보인 지역이다. 비록 시즌의 시작이 늦고 낮은 병 발생도 원인이 되었지만 주요인은 환차이다. 북미 지역 매출액은 늦은 시즌과 낮은 해충발생을 때문에 4.7%떨어졌다.

곡물과 두류 재배에서의 제초제 판매에 의한 수익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위기관리영향과 상반기 기뻐감으로 남미 매출액은 급감했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회복으로 만회하여 전체적으로 6.4% 감소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신흥시장의 높은 수요덕분에 판매가 4.9% 상승하였다.

제초제 매출액이 10.1% 감소했고, 통화가치와 옥수수 관련 제품의 판매 부진 영향으로 선택성 제초제의 매출액은 7.9% 떨어졌다. Pinoxaden, clodinafop와 두류 제초제 판매는 상승하였다. glyphosate 가격하락과 paraquat 판매 감소로 비



선택성제초제는 14.1% 감소하였다. 유럽과 북미의 살균제 수요 감소로 판매가 6.8% 감소하였다. 하지만 벼와 두류에서의 사용량 증가와 높은 가격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살충제는 아메리카 지역의 낮은 해충발생률로 매출액이 7.8% 감소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는 chlorantraniliprole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 종자처리제는 thiamethoxam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1.1% 감소했다. 전문 제품은 13.1% 감소한 반면 기타 제품은 6.7% 증가했다.

바이엘 크롭사이언스(Bayer CropSc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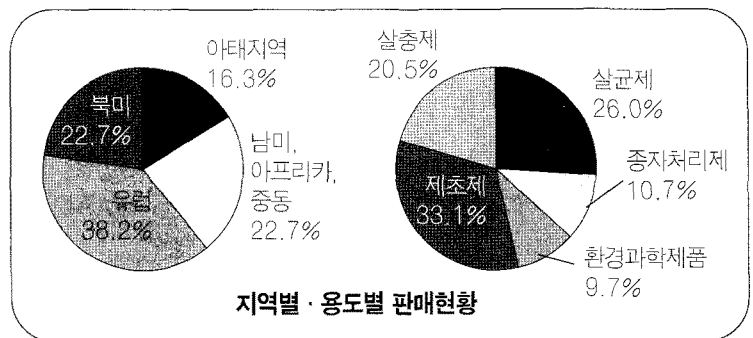
농약 매출액은 1.3% 상승한 60억7백만 유로로 달러가치로는 3.8% 감소된 83억4천9백만 달러와 동등한 수치이다. 신젠타와 판매차이가 2008년에 5억5천6백만 달러에서 2009년 1억4천2백만 달러로 줄어들었으나, 세계시장 2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1999년 이래 추정 매출액은 달러가치로는 매년 2.7% 상승했지만 유로화 가치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래로는 달러가치로 매년 3.6%, 유로화 가치로 년 1.3%의 성장률을 보였다. 환차 영향을 제외하고도 주로 제초제 매출에 영향을 받아 매출액은 약 2% 상승했다.

유럽 지역은 낮은 발병률과 이 상기후에 의한 살균제 수요 감소 때문에 매출액이 달러화로 8.5% 감소했다(유로화로 3.7% 감소). 제초제와 살충제 매출액은 약간 상승했다. 북미지역 매출액은 제초제의 선전으로 달러가치로

2.0% 상승했다(유로화 가치로 7.3%). 종자처리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액이 감소했다. 아태지역 매출액은 달러가치로 0.9% 상승했다(유로화 가치로 6.4%).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제초제, 살균제 수요가 증가하고 일본과 호주의 제초제 매출액도 상승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살충제 매출액은 감소했다. 남미, 아프리카, 중동 매출액은 4.0% 감소했다(유로화 가치로 +1.0%). 남미에서는 가뭄으로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지만 하반기 수익으로 완회되었다. 아프리카는 증가하였으나 중동은 약간 감소하였다.

제초제 매출액은 GMO 작물에 사용된 glufosinate 수요덕분에 달러가치로 1.7% 성장하였다(유로화 가치로 7.0%). 최근 판매된 제품도 매출액 상승에 기여하였다. 살충제 매출액은 달러가치로 8.0% 감소하였다(유로화 가치로 -3.2%). 해충 발생이 낮은 것이 모든 살충제의 매출액 감소를 가져왔다. 살균제는 유럽과 남미의 상반기 수요 감소로 인해 달러가치로 5.1% 감소했다(유로화 가치로 -0.1%). 종자처리제 매출액은 낮은 clothianidin 수요로 인해 달러가치로 5.4% 감소했다(유로화 가치로 -0.5%). CropStar(imidacloprid + thiodicarb)의 매출은 남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바스프(BASF)

2009년 매출액은 유로화 가치로 7.0% 성장한 36억4천6백만 유로이다(달러가치로 1.6% 50억6천7백만 달러). 이 매출수준은 몬산토를 따라잡아 세계 농약업계에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상기후와 낮은 물가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신중한 구매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2008년말 인수한 Sorex의 기여로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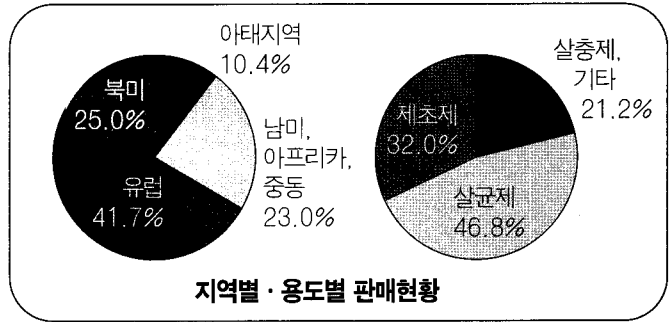
1999년 이래로 매출액은 매년 유로화 가치로 1.0%, 달러가치로는 3.7% 상승했다. 지난 5년간 농약 매출 성장 평균은 매년 유로화로 1.7%, 달러화로 4.0% 이다.

유럽 매출액은 달러가치로 6.5% 떨어졌다(유로화 가치로 -1.6%). 동유럽의 통화약세와 어려운 신용관리로 인해 매출액 증가가 어려웠다. 이상기후도 살균제 수요 감소에 한 몫 했다. Sorex의 성과로 매출액이 북미시장 사업은 달러가치로 10.7% 성장을 나타낸다. 살균제는 이상기후와 낮은 곡물가격으로 매출액 감소를 보였다. 남미는 하반기 살균제의 큰 수요로 달러가치로 3.5% 성장했다(유로화 가치로 9.0%). 사탕수수와 두류에서의 수요도 회복했다. 아태지역 매출액은 중국과 인도의 매출에 힘입어 달러가치로 14.0% 상승했다(유로화 가치로 20.0%).

살균제 매출액은 달러가치로 3.9% 증가했다(유로화 가치로 +9.3%). 하반기 남미의 두류 살균제의 큰 수요가 매출 성장에 기인했다. 유럽지역은 이상기후가 발병 위험 감소되었다. 제초제 매출액은 유럽과 북미의 낮은 시즈에 영향을 받아 달러가치로 3.2% 떨어졌다(유로화 가치로 +1.8%). 인도의 두

류 제초제 등 아시아지역 수요는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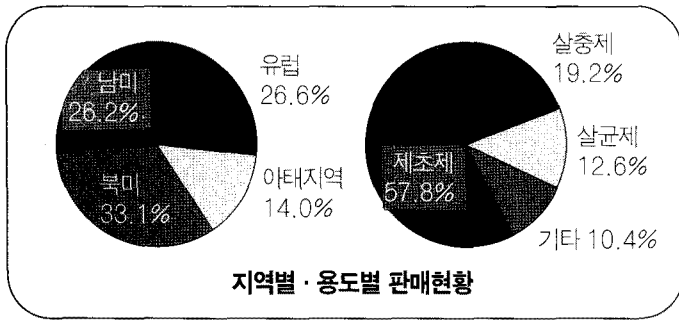
살충제와 다른 제품의 매출액은 달러가치로 4.5% 상승하였다(유로화 가치로 +10.0%). 브라질 사탕수수 지역에 수요가 높아지고 두류 종자처리제 Standak(fipronil)의 매출액도 우수했으며, Sorex도 추가적 수익을 창출하였다.



다우 아그로사이언스(Dow AgroSciences)

지난해 농약 매출액은 39억2천만 달러를 기록, 세계 농약업계에서 한 단계 상승한 매출랭킹 4위를 기록하였다. 1999년 이래로 매출액이 매년 6.5%성장했고 2004년 이후로는 매년 4.6%상승했다. 2001년 롬 앤 하스 농약부문을 인수한 이래로 다우는 유기적 농약 사업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2009년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에 기여했다.

북미 매출액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4.1%감소했다. 곡류부문 제품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새 제초제인 pyroxulam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Invinsa는 추가적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다. 남미는 높은 재고수준과 상반기 기뭇 그리고 glyphosate 가격 하락으로 매출액이 1.7% 줄었으나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다. 유럽 매출액은 주로 통화의 영향으



로 5.3% 감소했다. 그러나 늦은 시즌과 이상기후 또한 곡류와 유채 관련 제품의 수요를 감소시켰다. 남유럽의 벼 제초제인 penoxsulam 매출액은 확대되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인도의 낮은 수요로 2.8% 줄었다.

2009년 제초제 매출액은 6.6% 감소하였다. 심해진 경쟁과 낮은 가격으로 glyphosate 매출액이 줄었다. 유럽과 북미의 이상기후는 곡류, 목초지를 위한 제품수요를 감소시키고 옥수수 제초제 또한 감소하였다. 살충제 매출액은 북미와 유럽의 해충발생의 감소와 판매가 감소로 인해 2.3% 줄어들었다. 살균제 매출액 역시 유럽과 북미의 낮은 수요로 3.5% 줄었다. 하반기 동안 남미의 수요는 개선되었다. 기타 농약 매출액은 13.3% 확대되었는데 롬 앤 하스에서 인수한 아그로후래쉬 생산 공정개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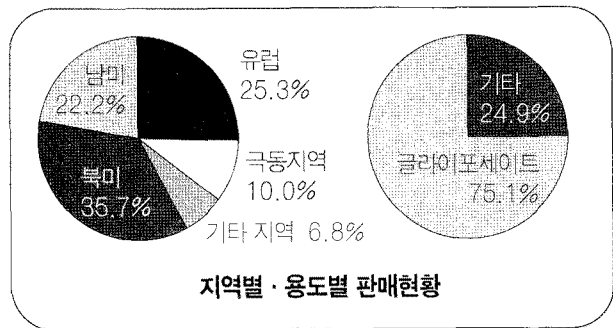
몬산토(Monsanto)

2009년 매출액은 glyphosate 가격과 수요 하락으로 34.9% 줄어든 34억2천5백만 달러로 순위가 2단계 하락한 5위를 기록했다. 1999년 이래 매출액이 매년 평균 0.6% 상승했으나 지난 5년은 평균 4.5% 증가했다. 이는 2008년 극심한 공급 어려움

으로 glyphosate 가격과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9년 중국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심한 경쟁을 불러와 판매가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왔다.

북미 매출액은 34.2% 감소하였다. 큰 경쟁은 몬산토에게 glyphosate 제품의 프리미엄 감소를 하게했다. 그리고

늦은 시즌과 이상기후가 수요에 영향을 미쳤으나 상대적으로 선택성 제초제와 종자처리제의 상황은 괜찮았다. 남미의 매출액은 36.3% 낮아졌다. 중국의 경쟁적 공급으로 판매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수요 또한 상반기 가뭄으로 영향을 받았다. 늦어진 시즌, 이상기후와 통화문제로 유럽 매출액을 37.8% 감소시켰다. 극동지역은 주로 낮은 판매가 때문에 29.6% 감소되었고, 기타 다른 나라의 매출액은 29.2% 감소하였다.



glyphosate 매출액은 2009년 41.2% 감소한 27억7천3백만 달러이다.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중국 제품의 초과 공급 결과로 급격히 매출이 하락이 되었다. 이상기후와 극심한 경쟁은 낮은 가격을 빠르게 만들었다. 기타 농약 매출액은 3.6% 감소한 8억5천2백만 달러이다. 주로 제초제 acetanilide와 살균제 silthiofam 로 구성되고 있다. 